

곳곳에 방치된 공유형 전동킵보드...보행자 안전 '위협'

공유형 경우 관련법 없어 광주 시내 곳곳 무단방치 '눈살' 사용자 대부분 안전장비 미착용 사고위험...대책마련 시급

애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공유형 전동킵보드가 도로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세워두고 방치하는 경우가 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인용 이동 수단인 전동킵보드는 목적지까지 가는 거리가 택시나 버스로는 짧고 도보는 애매한 경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20~30대 청년들과 직장인들 사이에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늘어난 만큼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운행이나 주차 등을 규제하는 법 조항이 없어 유동인구가 많은 정류장 부근과 통학로, 상가 건물 입구 등 목 좋은 인도와 아파트 단지 내부까지 침투해 통행이나 보

행에도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차 금지구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이다 보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킵보드 이용자들의 안전 운전 미준수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안전모 등 인명 보호 장비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보호 장비 없이 자동차 도로로 질주 하거나 통행할 수 없는 인도로 운행하는 등 불법 운행이 비일비재하다.

A씨는 “곳곳에 방치된 전동킵보드 때문에 부딪힐뻔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안전 조치가 완벽히 준비될 때까지 전동킵보드



대여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킵보드는 1인 사용이 원칙인데 한 대에 두 명이 함께 타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며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유서비스에 이용되는 전동킵보드는 혼자



탑승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들도 반드시 1인만 탑승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둘이 탑승하면 전동킵보드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져 방향조절과 제동이 의도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현재로서는 전동킵보드에 2명이 타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는 점이다.

전동킵보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자체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부서도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윤희기자

광주·전남 “문지도 따지지 않고 코로나19 무료검사”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이 최근 각종 시설과 직업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별진료소 무료검사를 권고했다. 광주와 전남도는 거리두기 단계와 거주 지역, 증상 유무 관계없이 지역내 모든 보건

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최근 1주일 간 하루 5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4차 유행에 대비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최근 하루 500명 이상 확진자 발생 거주지·증상 유무 상관없이 검사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 잠복 감염을 최대한 줄이도록 선제적·공격적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해 코로나19 확산세를 낮추고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바라는 지역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 접촉자 등만 무료검사를 진행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순천에 있는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에 임시 검사시설을 설치해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의 신속한 진단검사를 했다.

이에 따라 1일 최대 1600건에서 2900건의 진단검사가 가능해지면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추가 감염자 차단 활동을 신속하고 효과

적으로 펼쳤다.

현재까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본원 17만1639건, 동부지소 10만6758건 등 총 27만8397건의 진단검사를 완료했다.

광주도 광주시청 광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기재한 뒤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광주는 지역의 병·의원 1036개소와 약국 677개소에 검사 권고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37.5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 상실, 폐렴 등의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먼저 받게 하도록 안내한다.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른 지역을 방문했거나 타지역민과 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만큼 강화된 기본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만남·모임 등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재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944명으로 지역감염 869명, 해외유입 75명이다. 광주는 2228명이 감염됐다.

기동취재본부



담양 명소 '국수의 거리' 오는 10월까지 차량 통제 보행자 안전·쾌적한 환경 위해

담양의 관광명소인 '국수의 거리'가 10월까지 차 없는 쾌적한 거리로 변모한다.

군은 지난해부터 매년 4~10월 안전한 보행 환경과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국수거리 150m 구간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관방제림을 따라 줄지어 담양 국수거리에는 오래 전 죽물시장을 찾은 상인이나 죽세공들이 형성한 거리다.

통제시간은 평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담양=박중영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